

개관 5년째 문화전당 대행·이원화 지속되나

국가운영 4월 13일 종료...통합 불투명 논란 불가피 지역 문화계 "아시아문화원 전부 위탁은 시기상조"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국가 운영 기간이 오는 4월 13일로 종료되지만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와 이원화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화전당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국가 운영기간 5년 연장을 포함한 '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시아문화원 위탁 기간이 오는 4월 13일 만료되지만, 4월 총선(4월 15일)과 맞물려 있어 연장 기간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ACC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콘텐츠 창·제작을 비롯한 수익 창출 등은 아시아문화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올해로 개관 5년째를 맞는 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 공모는 지난 2017년 12월 5차에 걸친 전당장 선임 공모를 끝으로 중단된 상태로, 지금까지 방성규·이진식 전당장 직무대리가 수장을 맡고 있다. 개관 4년 만에 누적 관람객 1000만 명을 달성하고 국민 문화향유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차별화된 복합문화기관으로서 자리매김했다는 긍정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인지도가 낮은 점은 개선해야 할 과제다.

특히 전당의 국가 운영 기관이 만료되는 4월 13일 이후에는 특별법에 따라 아시아문화원에 운영을 위탁해야 하는 문제는 전당 운영의 효율성 및 정상화 방안과 맞물려 지역 문화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

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4월 13일 문화전당의 성과를 평가한 뒤 운영을 아시아문화원이 전부 위탁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권을 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4월 총선과 연동돼 있어 문화전당의 국가기간 운영 5년 연장안이 통과되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총선 이후 개정안이 다시 제출되고 논의되는 일련의 과정을 다시 밟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현재의 이원 체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있다. 그동안 이 같은 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적잖이 제기됐던 터라 어떤 식으로든 통합 문제가 정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전당의 운영 및 대외협력, 관리 감독은 문화전당이 맡는 반면 콘텐츠 창·제작, 유통, 홍보 등은 아시아문화원이 수행하는 구조였다. 현재 문제부 소속 기관 50여 명 직원에 160여 명의 아시아문화원을 관리

감독하는 형태다. 이로 인해 사업 및 업무 중복 뿐 아니라 예산 및 인력 운용의 비효율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통합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통합되느냐의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통합 방식이 결정되지 않아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문화계는 옛 도청 복원사업의 지속성, 낮은 국비 투입 등으로 당장 아시아문화원으로의 전부 위탁(법안화)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정치권, 문화계가 중지를 모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문화도시 광주의 정책을 진단하는 포럼에서 "국가의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지역 문화예술 인력의 참여를 일정 정도 보장하는 민간 조직이 전담을 운영하는 제3의 방식이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현안 해결 민·관·시민단체 머리 맞댄다

전남도 6월 '혁신포럼' 출범 정부 지역혁신포럼 개최지 선정

전남도가 행정안전부의 2020년 지역혁신포럼 개최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주민·지자체·공공기관·기업·시민단체 등이 협력해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혁신 플랫폼인 '전남혁신포럼'을 발족할 예정이다.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포럼 출범 사·도를 선정하기 위한 이번 공모에서 전남도는 시민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민간역량 강화사업 추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역이슈·의제풀 선정, 타 지역과 연계한 공동의제 발굴 등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포럼 사무국 운영비, 의제실행비, 출범식 및 관련 행사비 등으로 매년 3억~4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전남도는 오는 2월중 도, 시·군,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대기업, 시민단체, 사회경제기업, 대학 등 대내 16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전남혁신포럼 추진위원회와 사무국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포럼 추진위원회 구성후 4개월여간 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권역별 워킹회의와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이를 의제화하고 관련 참여 기관 등과 매칭해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6월 전남혁신포럼 참여기관과 전국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포럼출범식을 개최해 분과위원회별로 선정된 의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발표·공유하고 의제실행에 이제 본격화하게 된다.

전남도는 포럼의 지속가능성과 의제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사회혁신 및 사회적가치 지원 조례'를 제정, 의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포럼의 성공적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보행자 도로 넓어 걷기 편해요



광주시가 추진한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사업'으로 비좁았던 서구 금호동 시영 3단지 아파트 옆 보행자 도로가 한 눈에 봐도 걷기 편하고 보기에도 좋아졌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금호동 도시공사1단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보행로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 금호동 시영3단지 보행로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마무리

광주시는 서구 금호동 시영 3단지 아파트 주변 보행로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곳은 메타세콰이아 성장으로 보도 폭이 좁아져 통행이 불편하다는 시민 불편사항이 많았던 구간이었다. 광주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사업'을 주민들에게 제안하고 동의를 구했다.

사업 착수 후 보행로와 아파트 사이의 담장을 허물어 가로수를 보호하면서 보행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다. 걷기에도 좋고 미관상 보기에도 좋게 바뀐 것이다.

전남도 1200억 들여 수산식품수출단지 구축

해조류 전락품목 집중 육성 수산복합센터 화순·해남 조성

전남도는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하고 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200억원을 투입해 수산식품수출단지 등을 구축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해조류를 수출 전락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시설, 국제수산물거래소, 가공공장, 냉동보관시설, 수출기업 지원시설 등 수출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34억원을 투

입,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을 추진한다.

또 290억원을 들여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성 수산식품개발을 위한 연구, 가공, 유통 시설 등을 갖춘 복합센터 건립을 화순군 능주면과 해남군 마산면 등 2개소에 조성할 예정이다.

수산물의 신속한 가공처리와 저온 저장을 위해 367억원을 투입해 도내 52개소의 수산물가공시설 건립으로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산물의 저장능력 향상을 위해 75억원을 투입해 시·군 22개소의 저온저장시설을 확충, 수산물의 수급조절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신선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150억원을 들여 청정어판장, 산지거점유통센터, 수출물류센터 등을 건립, 내수 및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유통·공급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전남 수산물의 다양한 홍보와 판촉활동을 통한 제품판로 확대를 위해서도 28억원을 배정,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TV홍소평·박람회 등 참가도 지원한다. 국제식품기준(CODEX)에 적합한 고품질 전일염 생산을 위해 전일염종합유통센터,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장기저장시설 등을 건립하는데도 220억원을 투입한다.

전남도 중·소상공인 경영안정 4500억 지원

소재부품·뿌리기업 등 자금 배정 일본 수출 피해기업 계속 지원

전남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안정적 경영을 돕기 위해 '2020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4500억원을 지원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기업경영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자금 2700억원, 창업과 경영 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기계설비 등 생산 시설 투자, 공장 증·개축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지원하는 시설자금 700억원 등이

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 운영자금은 전남도와 협약한 13개 은행의 협조자금이다. 기업에서 최대 5억원(소상공인은 최대 2억원)을 대출받으면 도는 대출이자의 연 1.1~2.5%(우대기업 1.4~2.5%)를 지원해준다.

일본 수출 피해기업에 지난해에 이어 계속 지원하고, 소재부품·뿌리기술전문기업, 스마트공장, 조선업종 등도 업종별로 자금을 배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설자금은 기업당 최대 20억 원까지 연 2.0~2.25%(변동) 저리로 지원해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여직원 성희롱 책임' 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 사의

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사)가 최근 불거진 재단 고위 간부의 여직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신 대표이사는 지난 23일 재단 이사장인 이용섭 시장을 만나 사퇴 의사를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신 대표이사가 최근 재단에서 불거진 성희롱 사건 등으로 이사장의 시정 운영과 재단에 부담 주는 것을 원치 않아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신 대표의 사직서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광주복지재단 혁신과 오는 7

월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비해 새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나서는 한편 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복지재단 전 계약직 직원 A씨는 재단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강의를 위해 제주도를 찾았다가 이 사실을 알고 뒤따라온 간부 B씨가 성적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재단에 냈다. 광주시는 당사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신 대표는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해 4월 임명됐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